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등학교 관악대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고등학교 관악대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유 성 철

2009년 8월

고등학교 관악대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고등학교 관악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허대식

유성철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유성철의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8월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3. 연구의 제한점	2
II. 이론적 배경	3
1. 우리나라 관악의 역사	3
2. 제주 관악의 역사	4
3. 제주도내 고등학교 관악대 현황	11
III. 관악대의 운영 실태 분석	15
1. 조사 방법	15
2. 관악대의 운영 실태 분석	15
IV. 결론 및 제언	30
<참고문헌>	33
<국문초록>	34
<ABSTRACT>	36
<부록>	38

표 목 차

<표1>관악대 편성 인원	15
<표2>지도교사의 전공	16
<표3>관악대의 설립년도	17
<표4>관악대의 연간 운영예산	18
<표5>관악대원의 장학 혜택	19
<표6>관악대의 하루 평균 연습 시간	19
<표7>관악대의 주당 합주 횟수	20
<표8>관악대의 합주실 환경	21
<표9>관악대에 대한 동료 교사들의 협조 정도	21
<표10>관악대에 대한 학부모들의 호응도	22
<표11>관악대원 모집	23
<표12>단원모집 방법	23
<표13>참여하는 행사	24
<표14>연간 교내외 행사 참여 횟수	24
<표15>관악대에 가입하게 된 동기	25
<표16>악기의 선택	26
<표17>현재 본인 악기의 적성 여부	26
<표18>관악대 활동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	27
<표19>관악대 활동에 대한 담임교사의 생각	27
<표20>본인의 하루 연습 시간	28
<표21>파트별 강사의 필요성	28
<표22>관악대 활동에 있어서 어려운 점	2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과 교육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¹⁾

이러한 음악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악대 활동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악기를 통하여 음악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음악을 표현할 수 있으며 단체 활동을 직접 체험하여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이다.

관악대 활동의 장점은 학생들이 전체 합주 연습이나 교내외 각종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에서의 연주활동을 통하여 단체 활동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현실에 관악대 활동을 통하여 이를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또한 관악대 활동은 학생들에게 악기를 통하여 음악을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악기를 통하여 자신이 지닌 음악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이 상상한 것을 음악으로 표현함으로써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관악대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악기를 찾아 그 악기를 통하여 취미활동을 찾으려 하며 흥미를 갖게 할 수 있고 입시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안에서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²⁾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경쟁으로 인하여 음악교육을 등한시 하고 있고, 이러한 학교의 여건과 관악대의 인식 및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학교 관악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고등학교 관악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관악대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각종 참고 문헌과 선행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관악의 역사, 제주 관악의 역사, 제주도내 고등학교 관악대 현황 등의 이론적 배경을 먼저 고찰하였고 제주도내 고등학교 중 관악대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관악대의

1)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1998. p.28.

2) 원혜림. “고등학교 관악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조사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pp1~2.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도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악대의 예산 및 운영방법, 운영 환경, 관악대원 모집방법, 행사 참여 정도 등에 대하여 설문지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분석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두었다.

첫째, 연구에 선정된 학교는 제주도내 고등학교 관악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내용은 설문 조사를 통한 결과만을 활용하였다.

셋째, 설문내용의 선정은 대답을 회피할 사항은 배제하였고 주로 일반적인 사항만을 선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우리 나라 관악의 역사

우리나라에 관악기를 처음 도입한 것은 과거에 군대의 명령과 통신 수단으로 사용한 나팔(Bugle)을 사용하면서부터이다. 그 후에 우리나라가 군대에 나팔고대를 편성하면서 관악사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나팔고대는 1876년(고종 13년) 한일조약 체결 이후 군대의 현대화를 시작하면서 한국인 24명을 일본의 육군 교도단 소속인 도야마학교에 군사 훈련 차 보냈다. 그 유학생 중 이은돌은 나팔연주 수업 성적이 우수해 군악대에 편입하게 되어 정식으로 나팔주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후 1882년 9월 20일 수료증을 받아 귀국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광주 남한 병대와 찬군 전령에서 나팔수를 양성 시키면서 우리나라에 서양식 악기에 의한 기악교육이 처음 시작되었으며, 1895년 11월 15일 한국 정부에서는 나팔고대의 예산을 세우면서 악대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896년에는 러시아의 서울총영사 슈페이어(Speyer)가 장교와 하사관 30명을 대동하고 부임하여 한국군의 군사훈련을 시작했으며, 그 후 120명의 러시아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켜 러시아식 나팔주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명대사인 민영환이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하면서 악대를 보고 감명 받아 고종 황제에게 우리나라에 악단을 창설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1898년 2월 우리나라에 곡호대를 창설하여 각 대대에 1개 소대씩 배치하였으며, 소대는 나팔수 10명, 소고수 10명, 인솔자 1명 등 총 21명으로 편성하였다.

1900년 대한제국정부가 양악대 창설을 계획하고, 지도자로서 프란츠 에케르트(F. Eckert)를 초청하였다. 그리고 당시 프랑스와 벨기에 공사로 있는 민영찬을 창설준비 책임자로 임명하여 1901년 2월 19일 50인조 콘서트밴드 편성의 악기와 부속품, 악보를 휴대하고 서울에 입국하였다. 그리고 속성으로 교육한 결과 1902년 9월 7일 접견소(덕수궁의 현존 건물)에서 고종황제 생신 때 각국 사신이 참석한 가운데 에케르트가 작곡한 『대한제국 애국가』를 처음 연주하고, 50여 국가에 정부가 재정 한 애국가를 배포하였다. 이것이 한국 관악대가 발전하게 된 첫걸음이 되었다.³⁾

에케르트와 양악대는 짧은 기간 안에 빠른 성장을 해 갔다. 에케르트는 한국의 양악대와 음악 인재를 육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음악을 계승, 발전시켜

3) Ibid., pp10~11.

이것을 세계화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그 방법을 한국인에게도 전수하였다. 한편 양악대는 바그너의 서곡 등을 연주할 수 있을 만큼 기량이 신장되어 국내의 서양 음악 보급에 기여하였고, 음악을 통한 외교 사절단 역할도 훌륭하게 해냈다.

그러나 1907년 군대가 해산되자 양악대의 운명도 급격하게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일단 명칭이 ‘이왕직양악대(李王職洋樂隊)’로 바뀌어 한동안 탑골 공원 연주 등은 지속되었으나, 한일합방 후에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워 민간 단체의 성격을 띤 ‘경성악대’로 변모하게 되었다.

양악대가 해산되자, 양악대 출신의 음악가들은 학교 밴드나 영화음악, 대중가요 쪽으로 활동 분야를 개척해 갔으며, 일부는 관현악단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의 양악 확산에 이바지했다. 그리고 양악대 출신인 백우용, 정사인 등은 전통 음악을 채보하고, 그것을 오선화(五線化)하여 신민요를 작곡하는 등 전통 음악 분야에서 적지 않은 업적을 남겼다.⁴⁾

2. 제주 관악의 역사⁵⁾

가. 제주 관악의 태동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제주도는 중앙의 문화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정객들의 유배지로 인식되어 왔을 뿐, 빈곤한 생활 속에서 문화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여 왔다. 이러한 제주에 관악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것은 일제가 군국주의 교육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서였다. 1930년대 중반 이후 1945년 8·15 해방 때까지 여러 소학교에서 관악대의 활동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마을에서의 신호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 집합 신호와 행진, 훈련 등에 활용하는 정도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도민들이 음악 등 예술 방면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1942년에 설립된 애월보통학교 관악대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5 해방과 미군의 주둔(제주의 경우 1945년), 도제 승격(1946) 등이 이루어지고, 일제 말기부터 이루어졌던 보통학교 중심의 관악활동은 제주초급중학교에서 1947년 제주도 최초의 9인조 중등학교 관악대를 창설하기에 이른다. 이후 이 관악대는 제주읍을 중심으로 각종 의식행사를 통해 4·3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도민들에

4) 이강숙 외. 「우리 양악 100년」. 현암사. 2001. pp49~52.

5) 문화예술재단. 「삶과 문화 vol. 4」. 2002. pp24~28.

제주문화예술60년사편찬위원회. 「제주문화예술 60년사 2」. 제주특별자치도. 2008. pp42~78.

게 용기를 북돋았고, 선무곡장대 내의 절대적인 존재로 많은 활약을 하였다. 더불어 이 관악대를 중심으로 동척회사, 제주농업중학교 관악대(1949) 등의 활발한 활동은 음악적 불모지에서 도민들을 교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6·25와 제주 관악

해방 당시 극히 미약했던 제주의 음악은 6·25전쟁 때 피난 온 여대영, 이성삼, 이성재, 계정식, 변훈, 박재훈, 김금환 등 여러 음악인들에게 자극을 받으며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험이 부족했던 도민들에게 순수 예술 음악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시켜주었고, 제주의 음악인들은 이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제주 음악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

특히 제주의 관악은 6·25동란을 계기로 많은 발전을 보게 된다. 당시 제주 주둔 C.A.C 부사령관 Charles E. Gilbert 소령은 오현고등학교, 한국보육원, 제주농업고등학교(현 제주고등학교), 제주중학교, 구세군보육원 등에 악기 및 악보를 기증하고 직접 지도에 나서서 관악을 부흥시켰다. 이와 함께 제1훈련소 군악대장 강문홍 대위도 각급 학교 관악대를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어 관악대의 수준은 날로 향상되어 갔다.

그러나 많은 활동을 해 오던 당시의 관악대들은 종전 이후 사회가 안정되면서 군악대와 경찰악대가 철수하게 되자, 오현고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 악대는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한편 오현고등학교 관악대는 끊임없는 활동을 통하여 전국적인 관악대로 발돋움해 나아갔다. 불과 창단(1952) 3개월만에 대외적인 행사에 참가하여 관심을 끌었고,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남 진주에서 개최되는 ‘개천예술제(현 영남예술제)’에 1953년도부터 참가하여 16년간 연속으로 우승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으며(지휘 김승택), 1956년의 서울대 음대 주최 전국 고교 취주악 경연대회와 1976년 KBS배 쟁탈 전국 고교 관악대 경연대회에서 2위에 입상하였고, 1970년과 1971년에는 예총 목포지부가 주최하여 열린 ‘목포예술제’에서 전 부문 최고 득점을 획득, 2회 모두 특상을 받는 등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그 저력을 보여 주었다.

다. 1960년대의 제주 관악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본격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이다. 경제부흥의 초석이 된 경제개발계획이 이 시기에 수립되었고 온 국토가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 재건의 몸부림을 친 시기이다. 음악에 있어서도 이 시기는 6·25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음악인들 스스로 창조적으로 음악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62년 음악협회가 결성되고 점차 활동의 폭을 넓혀 가면서 제주예술제와 한라문화제 등에 해마다 참여하여 자주적으로 음악의 수준을 높여 나갔다. 같은 해에 조직된 탐라합창단, 1963, 1964년 두 차례에 걸친 안익태 초청 공연 등 종전과 다른 자생적 활동이 이 시기 제주 음악인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관악 활동은 50년대 후반부터 약 10여년간 오현고등학교 관악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여러 학교악대가 창설되면서 제주의 관악은 그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964년은 효돈중학교에, 또 이와 비슷한 시기에 중문중학교에, 1966년에는 서귀중학교에 관악대가 창설되어 관악을 통한 정서교육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많은 관악인들을 배출하였다. 또한 1967년에는 세화고등학교에, 1968년에는 제주여자고등학교 관악대가 창설, 발대식을 가졌다.

라. 1970년대의 제주 관악

70년대의 제주 음악은 이전 시기의 음악활동을 기반으로 각 분야마다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시기이다. 음악인 혹은 음악 동호인들이 여러 기관의 후원으로 연주회를 개최하거나 국내의 저명 음악인 단체들을 초청하여 연주회를 열었고, 음악이 대중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특히 학교 음악 중심의 경연대회와 예술제 형식의 특색 있는 음악회가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저변 확대가 왕성히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관악활동으로는 제주제일고등학교 관악대가 창설(1971)된 것을 시작으로 제주상업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 및 영진보육원 등에 새로운 관악대가 창설되는 등 음악의 저변확대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음악활동이 전개되었다. 또 관악대 지도자들의 조직체인 한국관악대지도자회의 결성(1973)은 관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오현고등학교 관악대의 도외 경연대회에서의 좋은 성과와 서귀중학교 관악대의 진주 개천예술제에서의 우승 등은 제주 관악의 위상을 도외에 과시한 또 하나의 쾌거였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들어 관악활동은 시련을 겪게 되어 학교 악대는 활동을 중단하거나 침체되어 갔다. 그러나 발전된 사회적 여건으로 음악인들은 국내외의 관악인 및 음악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으며, 이들이 지도·배출한 관악도들은 국내의 여러 음악대학에 진학한 후 전문 관악인으로 성장하여 저명한 연주단체나 교육일선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 1980년대의 제주 관악

1981년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초대학과장 김인규)가 신설과 함께 시작된 제주대학교 윈드 심포니는 관악 전공 학생들로 이루어진 합주단이다. 1987년에 창단연주회(지도 이선문 교수)를 시작으로 많은 연주회를 가졌다. 1996년도 대한민국관악제(대전)와 제주국제관악제(1997, 1998, 2005, 2007) 및 아·태 관악제(2004), 2006년과 2007년에는 전국음악대학 심포닉밴드 가을축제 참가 등 수차례 연주회에 참여하였고,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문음악인 양성은 물론 지역사회 의 정서 함양 및 음악활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여기서 배출된 전문음악인들은 각 학교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학교 관악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거나 전문연주단체에 소속되어 지역사회의 각종 음악관련 행사를 주도하면서 음악인구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제주지역 음악 활동의 중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故 이선문 교수에 이어 2004년부터 현재까지 허대식 교수가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대정고등학교(1982),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1983), 대기고등학교(1986), 남녕고등학교(1987) 등에 관악대가 창설되고, 탐라관악합주단(1982)이 창단되기도 하였다. 도 외 행사로는 제주농업고등학교 관악대가 제7회 전국관악제에 참가(1981)하였으며, 한림공업고등학교 관악대는 제31회 개천예술제(1982)에서 관악합주 부문 최고상을 수상하였고, 1985년 제35회 1986년 제36회 개천예술제에서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 최초의 기악합주단인 탐라관악합주단은 1982년 지휘자 이선문에 의해 40여명의 직장인과 제주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되어 창단되었다. 창단 후 3년이 지나서 제주시립합주단으로 새롭게 창단되었는데 그 운영비를 제주시청에서 지원하는 형식의 시립단체인 제주시립합주단으로 승격된 것은 지금의 제주시립교향악단이 존재하게 된 원천이다. 그 과정에는 지휘자 이선문이 주역이 되고 제주의 관악인들이 일치단결하여 제주시장을 설득하여 얻은 결과이다.

창단연주회는 1985년 3월 22일 제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지휘자에 이선문, 악장에 클라리넷 강경수(당시 함덕종합고등학교 교사, 현 제주한라대학 교수)와 소프라노 고경은(당시 제주시립합창단 단원)의 협연으로 개최되었다. 제주시립합주단은 1987년 8월 제주시립관현악단으로 승격될 때까지 총 4회의 정기연주회를 포함하여 각종 합동연주회, 신춘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제주의 음악 분야뿐 아니라 제주문화 예술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제주시립교향악단의 창단연주회는 1987년 9월 3일 제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힘든 음악 현실에서 기악합주단에서부터 시작하여 시립교향악단에 이르기까지 많은 음악인들이 노력하였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1997년에 작고한 이선문 지휘자의 노력은 가히 칭송받아 마땅하다.

한편 1983년 제17회 전도체육대회에서는 연합악대를 구성하여 개회식행사를 맡아 진행하게 되는데, 관악단 활동이 실외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입증하게 된다. 이러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1984년에 열린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였다. 이 때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제주도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체육행사로서 연합악대가 개·폐회식 진행을 담당하게 된다. 이 행사에서의 대규모 연합악대 운영의 성과는 이후 계속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되고 관악활동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주게 된다.

바. 1990년대의 제주 관악

1990년대 제주도 음악계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단연 제주국제관악제의 성공적 개최였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수많은 축제들이 알맹이 없는 축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제주국제관악제는 국내에서 특성화로 성공한 몇 안 되는 축제 중의 하나이다.

한편 한국관악협회가 해마다 개최하는 전국관악제가 제17회 대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관악제로 타이틀을 바꾸어 1992년 제주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는 제주도에 최초로 열린 전국 규모의 관악축제였다. 더구나 이 행사는 국내 관악사상 가장 큰 규모와 내용으로 열렸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 관악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대한민국관악제와 여러 해에 걸친 제주관악제의 성공적 개최, 각종 행사에서의 연합악대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4년에는 일본 하마마쓰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 관악제(APBDA)에 제주연합악대(지휘 이상철⁶⁾)가 참가하게 된다. 이 때 참가국 관악단체들과의 관악정보 교환 과정에서 제주에서의 국제적인 관악축제를 구상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1995년 제주국제관악제로 나타나게 된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도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제주의 관악이 전국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계기였으며 국내에서 최고의 음악행사로 자리잡은 음악행사이자 제주도에에서는 최초의 국제적 음악 행사였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야외연주가 용이한 관악의 특성과 함께 제주가 갖고 있는 평화스런 이미지와 여름철 낭만이 조화를 이룬 관악축제이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관악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격년제로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 제2회 대회까지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1998년에는 일본, 대만, 독일, 한국에서 참가한 전문 앙상블, 관악 독주 등 소규모의 앙상블축제를 마련했다. 1999년 제4회 축제부터는 제주시와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게 되었는데 이는 문화관

6) 현 오현고등학교 음악교사,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부위원장

광도시를 표방하는 제주시의 의욕적인 조치였다. 2000년에는 세계 젊은이들을 위한 관악콩쿠르가 앙상블축제와 같이 열렸다. 제주국제관악제는 해마다 8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린다. 그리고 짝수 해와 홀수 해가 각기 특징적으로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함께 추구하는 이상적이며 완성된 축제로의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 예술축제의 하나이다. 이같이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라는 지역적인 특색과 관악이라는 특성이 어우러진 문화관광행사의 대표적인 음악축제라 할 수 있다.

또한 1995년 제주국제관악제의 성공적 개최 이후 제주고교연합악대는 1996년 홍콩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태평양 관악제에도 참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 열리는 제주국제관악제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국제적인 관악활동을 통한 제주도 관악의 위상도 점차 높아지게 된다.

연합악대 구성의 성과가 꽃을 피운 것은 이러한 연주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1998년에 개최되었던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나타난다. 이전까지의 전국체전과는 달리 전국체전사상 처음으로 연합악대를 활용함으로써 체전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대규모의 연합악대가 선수단 입장에서부터 개·폐회식, 식중행사 전 과정을 담당하여 제주도 관악인들의 축적된 역량을 살려 장엄하고 특색있는 연출로 제주 관악의 우월성을 전국에 과시하였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도의 음악활동을 비롯한 사회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서귀포지역에서 나타난다. 1996년에는 서귀포 지역에서도 기악연주단체 창단 움직임이 나타나 1997년 서귀포관악합주단을 탄생시키는데, 이는 서귀포지역에 생긴 최초의 기성 기악 연주단체였다. 이후 이 단체는 활발한 활동으로 1998년에 시립화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관악 100년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서귀포시립관악단의 창단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우리나라 최초였으며, 연주단체 운영을 희망하는 전국의 중소도시에 파급효과가 컸고, 전국의 관악인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또한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 관악대가 창단되었으며(1998),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대는 1996년 대만에서 열린 대북 국제 마칭밴드 및 의장대 축제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는 제주도 고등학교 관악대로서는 최초의 단일팀으로 참가한 해외 연주 여행이었다. 또한 1993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시민밴드 한라원드앙상블(지휘 김승택)은 다양한 활동으로 삼성사 재단이 재정한 제1회 탐라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사. 2000년대의 제주 관악

새로운 세기 21세기의 제주 음악은 관악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 새해 첫 날에는 99제주국제관악제에서 구성되어 활약했던 제주페스티벌밴드가 대만 치아이시에서 열리는 제11회 아시아·태평양 관악제에 참가한다. 10회까지의 APBDA참가는 제주고교연합악대가 담당했으나 전문연주자들에 의한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이 행사에의 참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관악계에 제주 관악의 위상을 알리고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었다. 그리고 이 대회에 참가하여 얻은 또 하나의 성과는 2004년 아시아·태평양 관악제를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참가국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후 해마다 구성되는 제주페스티벌밴드는 제주국제관악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2년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제11회 아시아·태평양 관악제에도 참가하여 광저우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여름날의 추억을 선사했다.

그리고 서귀포시립관악단(지휘 양경식)은 2000년 3월에 서귀포에 시립예술단이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이 악단의 독자적인 이름을 내걸고 해외 연주여행을 나서서 일본 구지카와시 시민예술극장 개관 5주년 기념 국제무대예술 교류사업 초청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하였다. 또한 2001년 7월에는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예술회관의 초청연주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02년 8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구립관악단으로 창단된 인천광역시 연수구립관악단과의 합동 연주를 갖는 등 서귀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00년 8월에 열렸던 제5회 제주국제관악제 앙상블축제는 지금까지의 제주국제관악제와는 달리 앙상블을 통한 예술음악에의 본질적 접근으로서의 변신을 꾀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축제였다. 이로써 제주국제관악제는 홀수 해에 개최되는 관악의 웅장한 합주력에 바탕을 둔 밴드축제와 짝수해의 고도의 개인기와 조직력을 필요로 하는 앙상블 축제, 차세대 관악기 연주자들의 등용문인 국제관악콩쿠르의 개최를 통해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한편 전문화된 축제로서의 지향하는 목표를 확실히 하였다. 한편 국제관악콩쿠르는 유네스코(UNESCO) 산하기구인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에 올해 2009년도 총회에서 가입을 승인 받아 대회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은 1957년 세계문화예술발전에 관련하여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폴란드 쇼팽 피아노 콩쿠르 등 전세계 120여개 콩쿠르가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가 2007년 유일하게 가입되었고, 올해 제주국제관악콩쿠르와 서울국제음악콩쿠르가 함께 가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관악콩쿠르가 세계 유수의 국제콩쿠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제주국제관악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관악인들이 개최하는 독주회, 관악단체들의 활발한 활동,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⁷⁾ 관악대(2000), 화북초등학교 관악대(2006), 제주서중학교 관악대(2006), 제주광양초등학교 관악대(2007), 서귀포고등학교 관악대(2008), 영주고등학교 관악대(2008) 등 여러 관악대의 창단은 제주 관악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3. 제주도내 고등학교 관악대 현황⁸⁾

가. 남녕고등학교 관악대

1987년 10월 이용범 지도교사 아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50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 계발과 정서 순화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교내 활동으로 매년 3월 신입생을 위한 환영 음악회와 7월 개교기념 경축으로 ‘청송 열린 음악회’를 통해 연주 실력을 뽐내고 있다. 현재 김상우 선생의 지도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나. 대기고등학교 관악대

1985년 11월 22인조로 시작했으나 연습장소가 협소해 지하실과 폐차 버스를 정비, 연습을 하는 등 처음엔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했다. 1986년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1989년 9월 KBS배 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도내에서는 첫 금상을 차지하였다. 매년 각종 도내 행사와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창단에서 현재까지 홍영희 선생이 지도를 맡고 있다.

다. 대정고등학교 관악대

6·25전쟁 당시 모슬포에 주둔한 육군 제1훈련소 군악대 장병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조련으로 1954년 16인조로 시작했으나 맥이 끊겼다. 1981년 재일본 대정 출신 독지가들 정성으로 44인조 관악대가 다시 태어났다. 2006년 9월 제31회 대한민국관악합주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대정읍 주민들을 위해 ‘고향사랑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처음 지도교사로 한영철 선생이 지휘봉을 잡고

7) 현 성산고등학교

8) 김수봉. “학교 관악대에 보유하고 있는 악기의 효율적 활용(공유) 방안 연구 -제주지역 12개 고등학교 관악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p21~28.
장문희. “제주 청소년 음악활동의 실태와 그 대안 -청소년 기악 연주단체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p8~10.

재창단되어 좌문철, 양승보, 김홍철, 강금구, 최광석, 윤정택 선생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현재 고지수 선생이 지도하고 있다.

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관악대

1986년 당시 동창회에서 50주년 기념 추진사업 일환으로 모금활동을 통해 36인조 관악대를 창단했다. 2000년부터 ‘섬, 그 바람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주국제관악제에 해마다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김순희 선생이 맡고 있다.

마. 서귀포고등학교 관악대

서귀포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뜻을 모은 모금운동과 더불어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으로 2008년 3월 공식 창단되었다. 관악대 창단과 지도는 김홍철 선생이 맡고 있다.

바. 오현고등학교 관악대

찰스 E. 길버트 소령의 도움으로 1952년 6월 창설되었다. 1953년 경남 진주시에 서 열린 제4회 개천예술제(현 영남예술제) 관악 경연에 첫 출전해 최고상을 수상한 이래 1973년까지 16연승을 달성했다. 매년 9월에 열리는 개교기념 정기연주회는 제주도내 기악연주회의 효시로 청소년 음악 문화를 선도해 오고 있다. 고봉식, 김승택, 박창표, 이선문 선생에 이어 1986년부터 이상철 선생이 지도를 맡고 있다.

사. 제주고등학교 관악대

제주고등학교 관악대는 1947년 강계돈 선생이 부임하면서 재일동포 독지가의 도움으로 15인조 관악대를 창설했다. 1950년 6·25전쟁 직후 제주항에서 출정 전송행사를 가지기도 했으나 대원들이 학도병으로 출정, 해체상태에 이르렀다. 1979년 11월 이봉주 선생에 의해 재건 발대식을 가져 현재 김성주 선생이 지도하고 있다.

아. 성산고등학교 관악대

성산고등학교 관악대는 2000년 5월 동문회의 도움으로 김재용 선생의 지도 아래 창단되었으며 다양한 음악장르를 표현하기 위해 악단 구성을 Concert Band와 Jazz Big Band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2월 11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8회 ‘제주 마린 콘서트’연주회를 개최하였고,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활동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현재 윤정택 선생이 이끌고 있다.

자.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관악대

1997년 김성표 교장이 부임하면서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창설되었으며 2004년 제주관악제에 참가했다. 2005년에는 탐동 여름 해변공연장에서 연주활동과 더불어 제주국제관악제에 시가행진에 참가해 호응을 받았다. 양승보, 전영순, 윤경자 선생에 이어 현재 최광석 선생이 담당하고 있다.

차. 제주중앙고등학교 관악대

제주중앙고등학교 관악대는 김충환 선생의 지도로 1976년 6월 40인조로 창단하고 그 다음해인 1977년 고경화 선생이 부임해 오면서 매년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1993년 도내 최초로 일본 오단이고등학교와 교환연주회를 가졌다. 현재는 김행중 선생의 지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카.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대

1983년 6월 제주시민회관에서 47인조로 창단 연주회(지도교사 이봉주)를 갖고 같은 해 9월 88인조의 Marching Band로 재편성해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체전 선두악대로 참가했다. 1986년 제36회 개천예술제 전국음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1996년과 1998년에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주최하는 세계마칭페스티벌에 참가하였으며, 2002년에는 대만 치아이시에서 주최하는 세계마칭페스티벌에 참가하였다. 이어 2006년에는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세계마칭쇼챔피언쉽대회에 참가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2008년도부터 김재용 선생이 지도하고 있다.

타. 제주제일고등학교 관악대

1971년 24인조로 편성해 제주시민회관에서 발대식(지도교사 강휘남)을 가졌다. 2007년 창단 36주년을 맞이해 정기예술제에서 연주를 했으며 학교행사를 활동으로 백호기 응원전에서도 연주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양승보 선생이 이끌고 있다.

파. 한림공업고등학교 관악대

1979년 3월 창단(지도교사 정승구, 지도강사 강경수)했으며 1982년 개천예술제에서 이봉주 선생의 지도 하에 대상을 수상했다. 1984년 제주에서 처음으로 관악대 내에 현악합주부를 창단(지도교사 송현)했다. 1994년 일본 하마마쓰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에 참가했으며 한수풀 음악제 등을 열면서 현재 김성훈 선생의 지도 하에 꾸준한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 영주고등학교 관악대

영주고등학교 관악대는 개인의 음악적 소질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여 전인교육 양성에 이바지하고 음악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며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제주음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7년 5월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불용악기 20여점을 기증받고 관악부창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2007년 12월 부족한 악기 및 비품을 구입하여 40인조 규모의 Concert Band를 만들었다. 창단에서 현재까지 강창협 선생이 단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Ⅲ. 관악대의 운영 실태 분석

1. 조사 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관악대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내 고등학교의 관악대 지도 교사와 관악대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지도교사는 14명, 관악대원은 355명이며, 교사용 설문지는 19문항으로, 학생용 설문지는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나. 도구

연구자가 평소에 관악대를 지도하면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관악대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지를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구분 제작하였다.

2. 관악대의 운영 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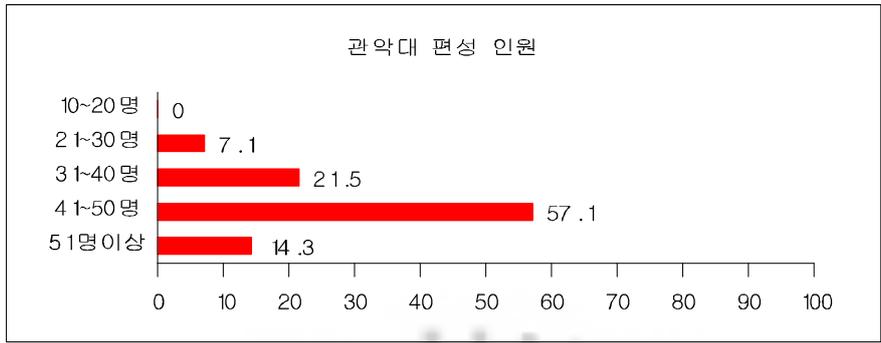
가. 지도교사에 관한 사항

1) 관악대 편성인원

관악대 편성인원 조사 결과 41~50명 사이가 57.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그 다음으로 31~40명 사이가 2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31~50명 사이가 가장 많이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표1>관악대 편성 인원

항목	10~20명	21~30명	31~40명	41~50명	51명이상	계
응답수(명)	0	1	3	8	2	14
비율(%)	0	7.1	21.5	57.1	14.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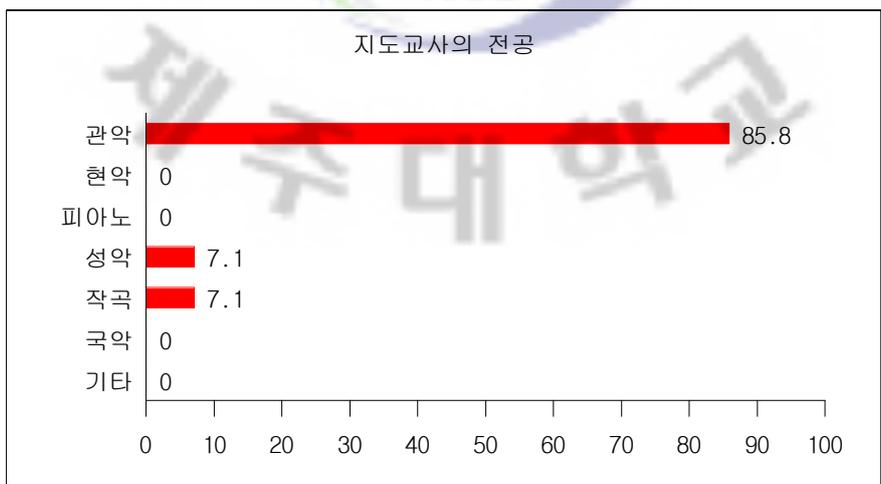


2) 지도교사의 전공

각 학교별 관악대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전공을 조사한 결과, 관악전공 교사가 85.8%였다. 대부분의 학교 관악대가 관악을 전공한 교사에 의해 지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2> 지도교사의 전공

항목	관악	현악	피아노	성악	작곡	국악	기타	계
응답수(명)	12	0	0	1	1	0	0	14
비율(%)	85.8	0	0	7.1	7.1	0	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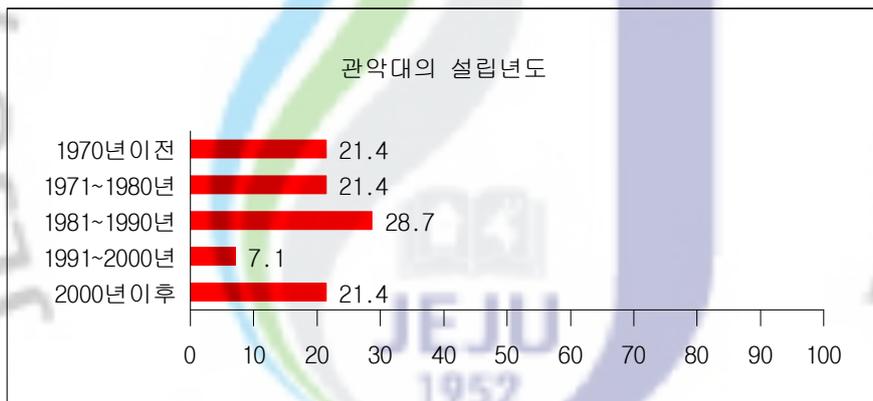


3) 관악대의 설립연도

관악대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1970년 이전이 21.4%, 1971~1980년 사이가 21.4%, 1981~1990년 사이가 28.7%, 1991~2000년 사이가 7.1%, 2000년 이후가 21.4%로 조사되었다. 1980년까지는 비슷한 비율로 관악대가 창단되었다가 1981~1990년 사이에 고등학교의 증설과 함께 관악대가 같이 창설이 되어 증가하게 되었고, 1991~2000년 잠시 주춤하다가 2000년 이후 다시 관악대 창단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3>관악대의 설립연도

항목	1970년 이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0년 이후	계
응답수(명)	3	3	4	1	3	14
비율(%)	21.4	21.4	28.7	7.1	21.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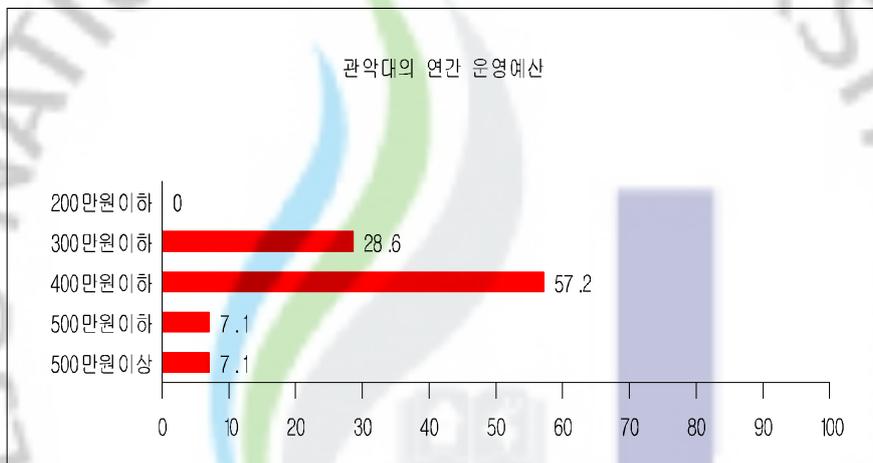
4) 관악대의 연간 운영예산

관악대의 연간 운영예산은 400만원 이하가 57.2%, 300만원 이하가 28.6%, 5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상이 각각 7.1%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고등학교 관악대의 경우 주요 활동이 교내 행사와 학교간 축구경기 응원이다. 전국경연대회 참가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행사가 드물기 때문에 4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악기나 부속품, 소모품 등이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악기구입비, 수리비, 소모품비 등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관악대를 지도하는 담당교사의 설문조사에서는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관악대를 운영하는 데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악대를 계속적으로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예산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표4>관악대의 연간 운영예산

항목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계
응답수(명)	0	4	8	1	1	14
비율(%)	0	28.6	57.2	7.1	7.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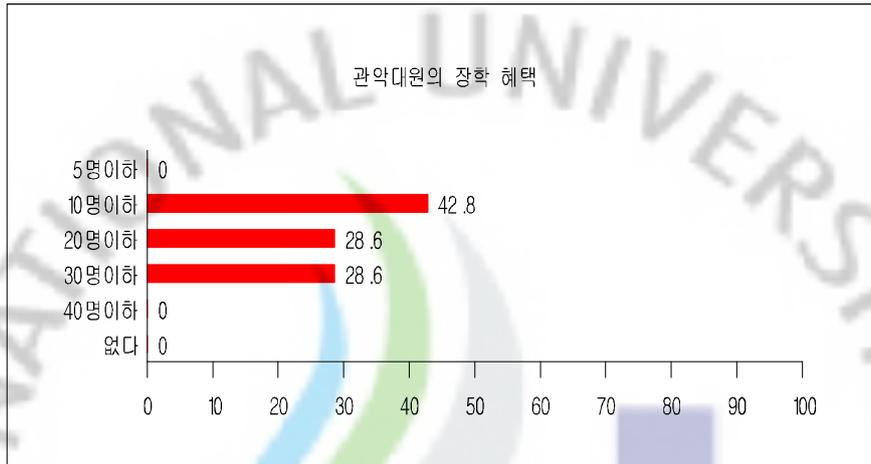


5) 관악대원의 장학 혜택

관악대원들에게 많은 학교들이 장학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관악대원들은 각종 교내 행사와 지역행사에 많이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장학 혜택을 줌으로써 관악대원들의 사기 증진은 물론 관악대원모집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표5>관악대원의 장학 혜택

항목	5명 이하	10명 이하	20명 이하	30명 이하	40명 이하	없다	계
응답수(명)	0	6	4	4	0	0	14
비율(%)	0	42.8	28.6	28.6	0	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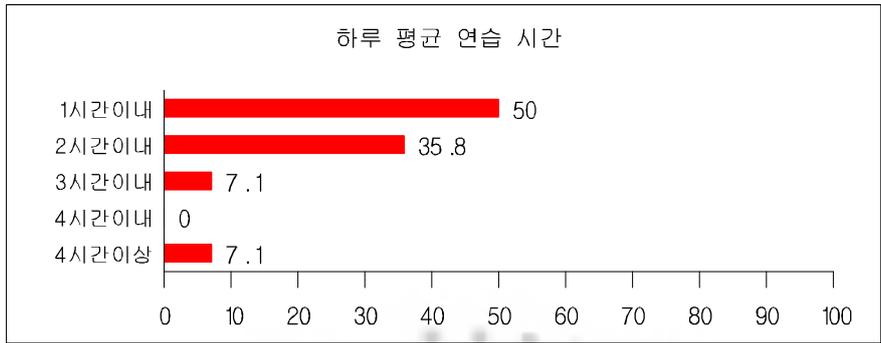


6) 관악대의 합주 연습 시간

조사 결과 하루 평균 연습 시간은 1시간 이내가 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시간 이내가 35.8%로 나타났다. <표7> 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당 2회 합주가 5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모든 단원들이 모여서 합주할 수 있는 시간이 과거에는 점심시간이나 청소시간 등이었으나 지금은 학교마다 급식소가 생기고 급식시간이 학년마다 달라서 모두 모여서 합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특히 입시위주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관악대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안정적인 합주시간의 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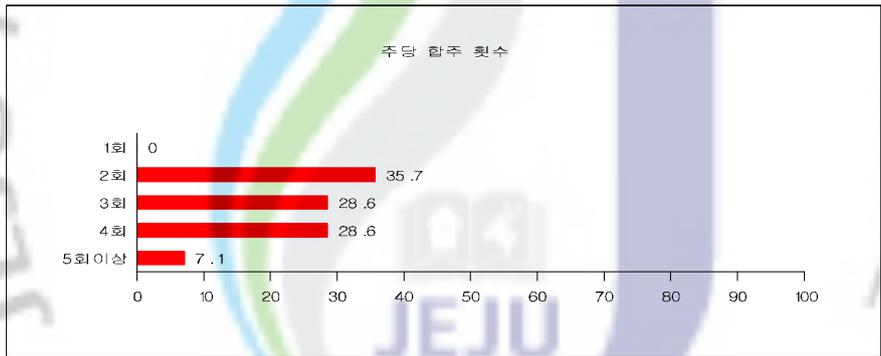
<표6>관악대의 하루 평균 연습 시간

항목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3시간 이내	4시간 이내	4시간 이상	계
응답수(명)	7	5	1	0	1	14
비율(%)	50.0	35.8	7.1	0	7.1	100



<표7>관악대의 주당 합주 횟수

항목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응답수(명)	0	7	4	2	1	14
비율(%)	0	50	28.6	14.3	7.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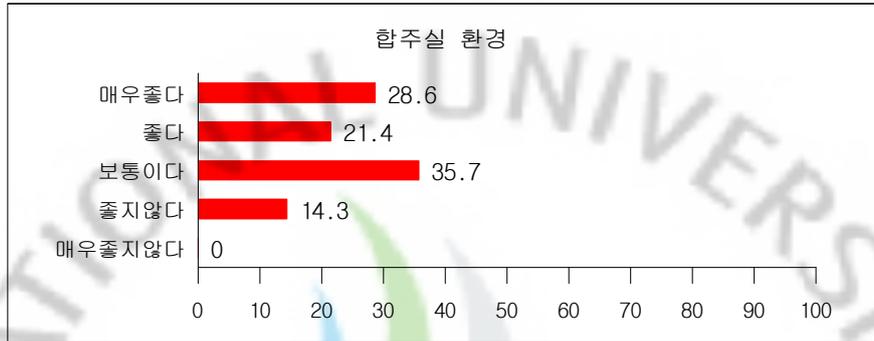


7) 관악대의 합주실 환경

관악대의 합주실 환경을 조사한 결과 매우 좋다 28.6%, 좋다 21.4% 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에서 합주실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합주 이외에 정규 수업을 합주실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습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8>관악대의 합주실 환경

항목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좋지 않다.	매우좋지않다.	계
응답수(명)	4	3	5	2	0	14
비율(%)	28.6	21.4	35.7	14.3	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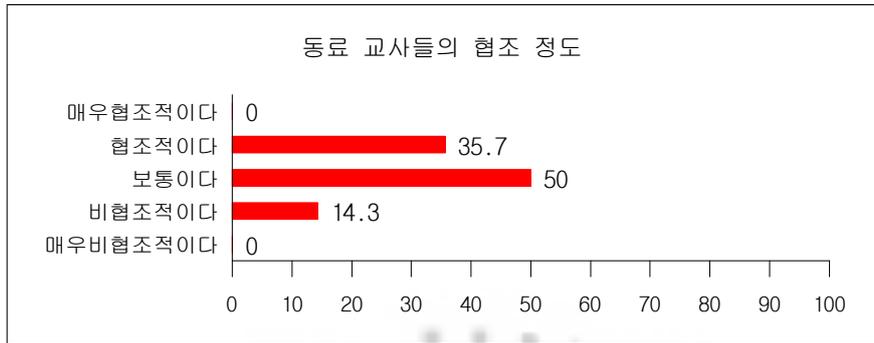
8) 관악대에 대한 동료 교사와 학부모의 협조 정도

동료 교사들의 협조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50%, ‘협조적이다’ 35.7%, ‘비협조적이다’ 14.3%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동료 교사들이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관악대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악대에 대한 학부모들의 호응도에 대한 조사 결과 소극적이다가 64.3%로 과반수를 넘었다. 입시중심인 고등학교에서 학업과의 병행으로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자녀들의 관악대 활동에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시 위주의 학습 풍토와 학부모들의 인식변화 없이는 관악대 활동을 활성화시키기가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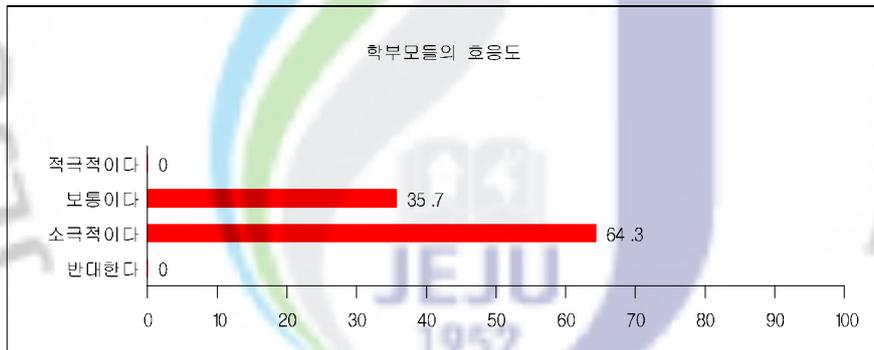
<표9>관악대에 대한 동료 교사들의 협조 정도

항목	매우 협조적이다.	협조적이다.	보통이다.	비협조적이다.	매우 비협조적이다.	계
응답수(명)	0	5	7	2	0	14
비율(%)	0	35.7	50.0	14.3	0	100



<표10>관악대에 대한 학부모들의 호응도

항목	적극적이다.	보통이다.	소극적이다.	반대한다.	계
응답수(명)	0	5	9	0	14
비율(%)	0	35.7	64.3	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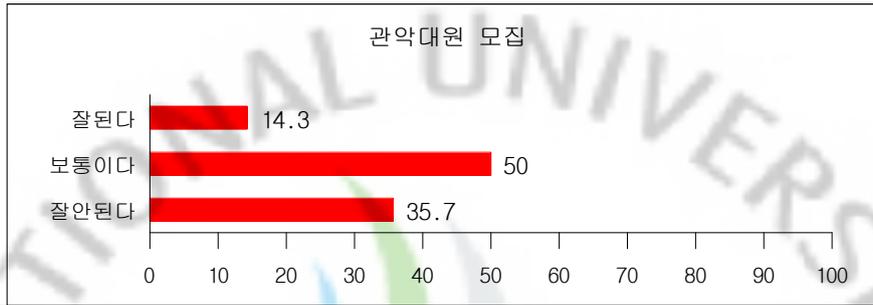


9) 관악대원 모집

관악대원 모집 설문 조사 결과 ‘보통이다’ 50%, ‘잘 안된다’ 35.7%, ‘잘된다’ 14.3%로 나타났는데, ‘잘 안된다’의 경우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인 것으로 나타나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비하여 대학진학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 가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11>관악대원 모집

항목	잘된다.	보통이다.	잘안된다.	계
응답수(명)	2	7	5	14
비율(%)	14.3	50.0	35.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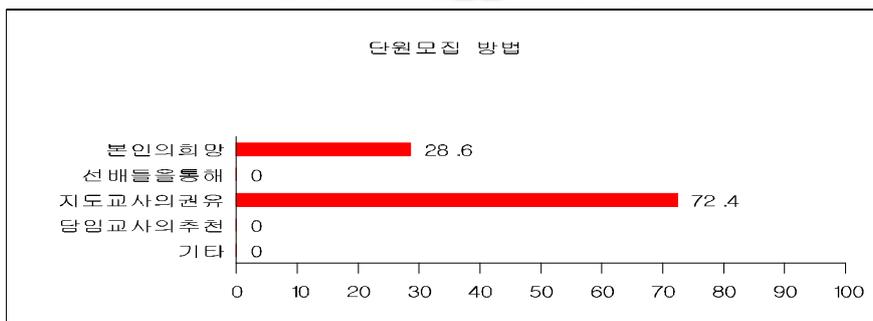


10) 단원 모집 방법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관악대에 가입하는 경우가 72.4%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의 강제 및 권유가 없고 학생 자신이 관악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관악대 초창기에는 지도교사가 강제로 가입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지도 교사 및 학생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표12>단원모집 방법

항목	본인의 희망	선배들을 통해	지도교사의 권유	담임교사의 추천	기타	계
응답수(명)	10	0	4	0	0	14
비율(%)	72.4	0	28.6	0	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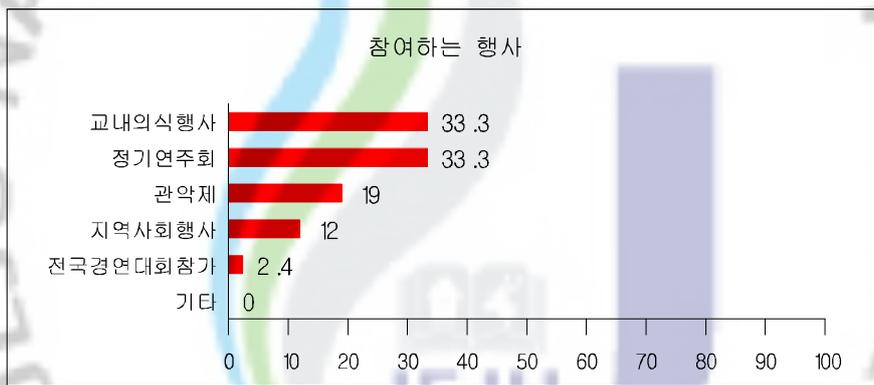


11) 연간 참여 행사 및 참여 횟수

각 학교 관악대의 연간 행사 참여 횟수는 3~4회 정도이며, 주로 교내 행사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대외적인 행사보다 교내 행사 위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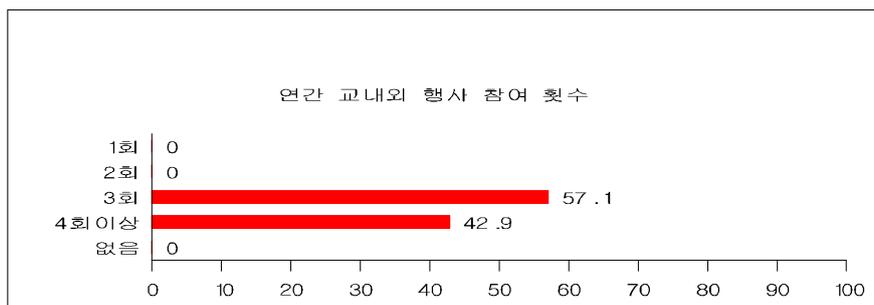
<표13> 참여하는 행사

항목	교내의식 행사	정기연주회	관악제	지역사회 행사	전국경연 대회참가	기타	계
응답수	14	14	8	5	1	0	42
비율(%)	33.3	33.3	19.0	12.0	2.4	0	100



<표14> 연간 교내외 행사 참여 횟수

항목	1회	2회	3회	4회 이상	없음	계
응답수(명)	0	0	8	6	0	14
비율(%)	0	0	57.1	42.9	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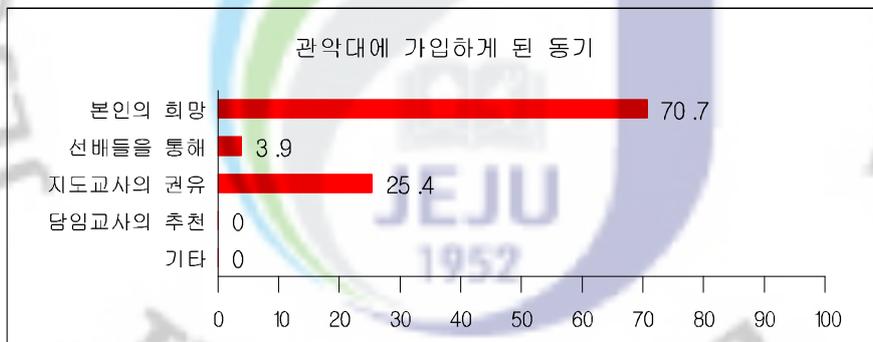
나. 관악대원에 관한 사항

1) 관악대에 가입하게 된 동기

학생들의 관악대에 가입하게 된 동기를 보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 관악대에 가입하는 경우가 70.7%를 차지하여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관악대에 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5>관악대에 가입하게 된 동기

항목	본인의 희망	선배들을 통해	지도교사의 권유	담임교사의 추천	기타	계
응답수(명)	251	14	90	0	0	355
비율(%)	70.7	3.9	25.4	0	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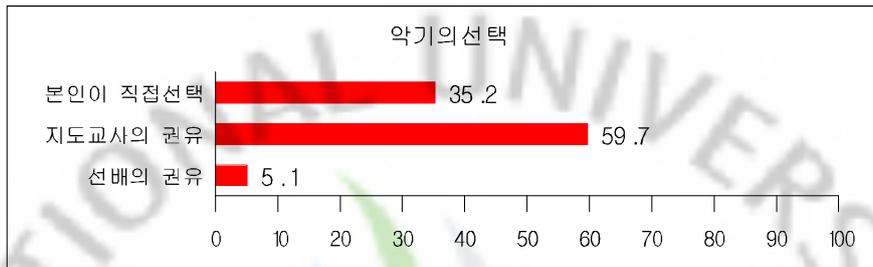


2) 악기관련 문제

악기 선택에 있어서 처음 접하는 악기들이 많아서 지도교사의 권유에 의해 악기가 선택되어 지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의 신체적 특징과 음악적 소질, 자신의 악기와 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상의하여 악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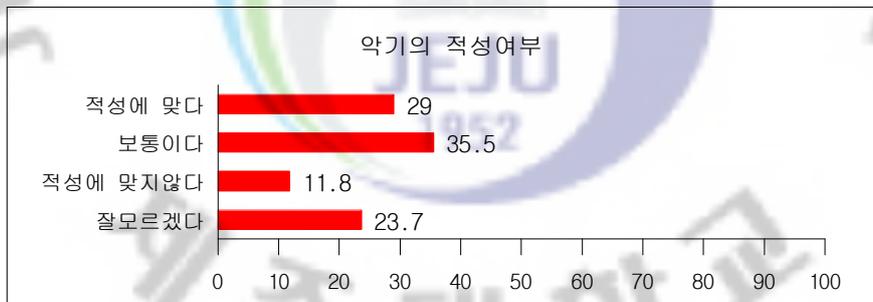
<표16>악기의 선택

항목	본인이 직접 선택	지도교사의 권유	선배의 권유	계
응답수(명)	125	212	18	355
비율(%)	35.2	59.7	5.1	100



<표17>현재 본인 악기의 적성 여부

항목	적성에 맞다.	보통이다.	적성에 맞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응답수(명)	103	126	42	84	355
비율(%)	29.0	35.5	11.8	23.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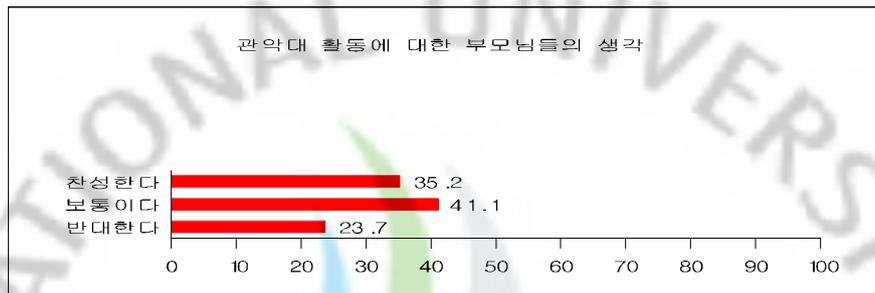


3) 관악대 활동에 대한 주변의 인식

관악대 활동에 대하여 담임 교사나 학부모들의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이거나, 학교 계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관악대 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실업계 고교 관악대에 비해 높게 나오고 있으나 과거에 비하여 관악대 활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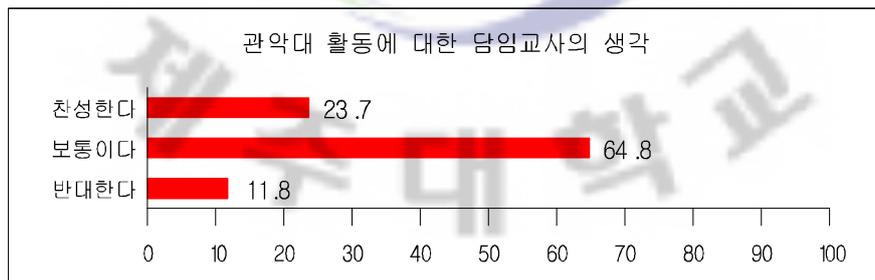
<표18>관악대 활동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

항목	찬성한다.	보통이다.	반대한다.	계
응답수(명)	125	146	84	355
비율(%)	35.2	41.1	23.7	100



<표19>관악대 활동에 대한 담임교사의 생각

항목	찬성한다.	보통이다.	반대한다.	계
응답수(명)	83	230	42	355
비율(%)	23.4	64.8	11.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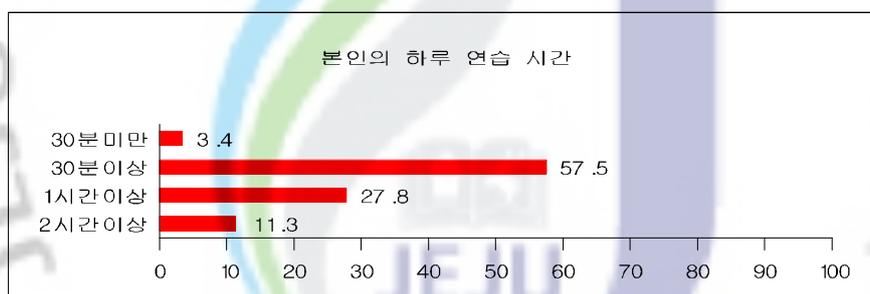
4) 악기 연주 기능 향상 관련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주기능 향상을 위하여 하루 30분 이상 개인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문가가 아닌 선배들에 의해서 악기의 기능을 익히고 있어서 제대로 된 악기 연주 방법을 익히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관악대 학생들 대다수가 파트별 강사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각 파트별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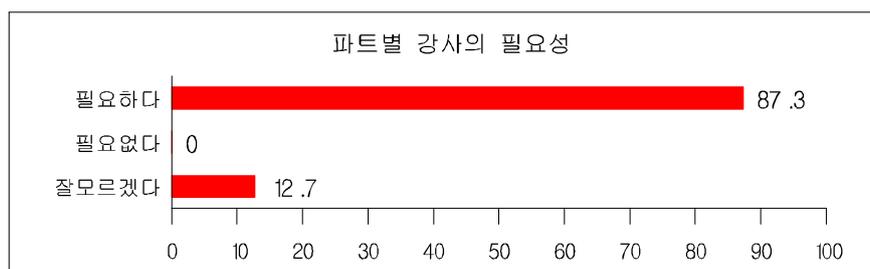
<표20>본인의 하루 연습 시간

항목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계
응답수(명)	12	204	99	40	355
비율(%)	3.4	57.5	27.8	11.3	100



<표21>파트별 강사의 필요성

항목	필요하다.	필요없다.	잘 모르겠다.	계
응답수(명)	310	0	45	355
비율(%)	87.3	0	12.7	100



5) 관악대 활동에 있어서 어려운 점

조사결과 ‘학교 공부와의 병행’, ‘타 교과 선생님들의 비협조’, ‘부모님의 반대’, ‘학교의 지원부족’, ‘선후배간의 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으로서 학업을 등한시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관악대 활동과 학교 공부 모두를 소화해 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표22>관악대 활동에 있어서 어려운 점

항목	타교과 선생님들의 비협조	부모님의 반대	선후배간의 관계	학교 공부와의 병행	학교의 지원부족	기타	계
응답수	160	148	75	343	98	21	845
비율(%)	18.9	17.5	8.9	40.6	11.6	2.5	100



IV. 결론 및 제언

‘모차르트 이팩트’라는 책을 보면 음악이 단순히 예술가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그리고 음악이 국어, 영어, 수학에 밀리는 단순한 예체능 과목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다.⁹⁾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볼 때 학교 관악대는 학생들에게 정서 순화는 물론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협동심 함양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 단체 생활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 관계 형성, 건전한 취미로써의 여가 선용, 잠재적 소질 계발 등과 함께 유익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초석이 되어 준다.

그러나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이 주가 되는 현실에서 음악 교육을 비롯한 음악 활동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있고, 이러한 학교의 여건과 관악대의 인식 및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학교 관악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조사 연구에서 나타난 실태 분석을 토대로 제주 지역 고등학교 관악대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관악대원 확보의 어려움, 충분한 연습 시간 및 연주 기회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조사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악대 운영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관악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충분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평균 500만원 정도의 학교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도 교사들이 관악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노후된 악기 교체나 수리,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기관, 학교, 동문회, 학부모 단체, 지역 단체 등의 경제적인 지원 및 협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육청 행사나 지역 사회 행사 때 학교 관악대가 행사에 참여 하여 격려금을 주거나 혹은 악기 지원 같은 협찬 등으로 관악대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출신 동문 기업이나 단체를 통해서 악기 구입 등에 협찬을 받는 방법이나 행사시 동문들로부터 발전 기금을 모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관악대원 확보를 위한 관리자, 동료교사, 학부모 등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

9) 브리타니 한 수도원에서 소들에게 모차르트 세레나데를 들려주었더니 소들이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해냈다. 미국 워싱턴 주의 이민 관리소에서 영어 수업 때 모차르트와 바로크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 심장병 환자 병동의 레이몬드 바르 교수는 30분간 음악을 들으면 불안 증상에 사용되는 벨리엄이라는 약물 10mg을 투여한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밝혔다.

다. 과거에 비하여 관악대 활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이 아직까지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의 질을 학업 성적으로 판단하고 학생 개인이 지닌 또 다른 특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잘못된 우리의 교육 방향에서 오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 부적합한 입시제도에서 오는 부산물인 것이다. 외국에는 예·체능 학생들을 많이 인정해 주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최고인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려야만 한다. 최근 교육당국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그나마 예술 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연구 발표되고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관리자나 동료교사,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다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의 의식 구조 개선을 위한 음악교사 모임의 활성화 및 음악단체의 활용을 확대하여 각급 학교 청소년 관악합주를 위한 연합활동과 모임 및 연주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도교사와 상담 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을 십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진로지도를 실시하면서 관악대를 운영한다면 학교 관악대에 대한 이미지는 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며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흥미가 없어 실패감을 맛보고 소외당한다는 자기 열등감에 빠질 공산이 큰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오히려 이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춘 건강한 사회인으로 바뀌진다면, 고등학교 관악계의 발전은 물론 관악대원들의 앞날도 더욱 희망찬 것으로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관악계의 미래도 밝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충분한 연습 시간을 확보하고 관악대의 연주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합주를 하였는데 단체 급식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학년마다 다른 급식 시간으로 인하여 이 시간마저 제대로 된 합주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연습시간의 부족은 관악대원들의 흥미나 소속감 등의 부족으로 이어져 연주 실력의 저하를 야기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져 학교 행사 위주로 국한된 활동만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연습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정규 교과 수업 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청소시간과 저녁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3, 4일 정도 정규적으로 자율학습 시간 한 시간 정도를 합주시간으로 학교에서 정하여 제대로 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악을 전공하려는 학생에게는 예체능 학급을 따로 편성하여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각 파트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관악대원들의 기초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관악대 지도 교사 혼자 모든 악기에 대해 관악대원들을 지도하는 것은 학생들

에게 올바른 기능을 전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각 파트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하는 것은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악기 연주 기법을 익힘으로써 악기 연주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이로써 숨겨져 있던 자신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관악대 전체의 합주 실력의 향상으로 다양한 행사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고등학교 관악대는 특별활동의 한 영역으로서 의미 있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전인교육 차원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관악대의 운영 및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제주지역, 더 나아가 전국의 학교 관악대가 활성화되며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단 행 본 -

- 강준일. 「음악에로의 입문」. 벨로체. 2002.
- 돈 캠벨(조수철 역). 「모차르트 이펙트」. 황금가지. 1999.
- 양경식. 「제주의 관악」. 삶과 문화 제4호(제주문화예술재단). 2002.
- 이강숙 외. 「우리 양악 100년」. 현암사. 2001.
- 제주문화예술60년사편찬위원회. 「제주문화예술 60년사 2」. 제주특별자치도. 2008.
-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8.

- 논 문 -

- 고영국. “고등학교 관악대의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김기래. “고등학교 관악대의 현황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김명배. “청주시 고등학교 관악부의 운영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수봉. “학교 관악대에 보유하고 있는 악기의 효율적 활용(공유)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김효욱. “우리나라 여자 고등학교 밴드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원해림. “고등학교 관악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조사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이승화. “한국 관악의 발전과 변천사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장문희. “제주 청소년 음악활동의 실태와 그 대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정문상. “관악합주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초보자 지도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최기봉. “충청남도 중·고등학교의 관악부 운영 실태에 관한 분석 연구”. 목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국 문 초 록

고등학교 관악대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고등학교 관악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유 성 철

음악 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음악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악대 활동은 학생들에게 음악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창의성을 기를 수 있으며 입시로 인한 부담감이나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경쟁으로 인하여 음악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고 이러한 학교의 여건과 관악대의 인식 및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학교 관악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고등학교 관악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관악대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각종 참고 문헌과 선행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관악의 역사, 제주 관악의 역사, 제주도내 고등학교 관악대 현황 등의 이론적 배경을 먼저 고찰하였고 제주도내 고등학교 중 관악대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관악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도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악대의 예산 및 운영방법, 운영환경, 관악대원 모집방법, 행사 참여 정도 등에 대하여 설문지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분석하였다.

본 조사 연구에서 나타난 실태 분석을 토대로 제주 지역 고등학교 관악대 운영의 문제점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 관악대에 대한 부정적인 주변 인식으로 인한 관악대원 확보 문제, 충분한 연습 시간 및 연주 기회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고등학교 관악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악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학교, 동문회, 학부모단체, 지역단체 등의 경제적인 지원 및 협조를 유지하여 안정된 재정 지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관악대원 확보를 위하여 학부모들의 의식구조 개선을 위한 음악 교사 모임의 활성화 및 음악단체의 활용을 확대하고 각급 학교 청소년 관악합주를 위한 연합활동과 모임, 연주회 등을 개최하며 아울러 지도교사와 상담교사, 지역사회인사 등을 십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진로지도를 실시한다.

셋째, 충분한 연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규 교과 수업 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주일에 3, 4일 정도 정규적으로 자율학습 시간 한 시간 정도를 할 주시간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한편 음악을 전공하려는 학생에게는 예체능 학급을 따로 편성하여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파트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악기 연주 기법을 익히도록 하여 관악대원들의 기초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고등학교 관악대는 특별활동의 한 영역으로서 의미 있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전인교육 차원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관악대의 운영 및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제주지역, 더 나아가 전국의 학교 관악대가 활성화되며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National script abstract

The study of high school brass bands' operating realities and improvement plans

-Focusing on high school brass bands in Jeju-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Major of Music Education

Yu Seong Cheol

The aim of music education is to develop students' musical potential and creativity, to express their feelings and thoughts through music, to better their quality of life, and to make whole men. As a way of achieving this purpose of music education, brass band activities can be good for students to display their musical potential so develop creativity and release their pressure caused by entrance examinations and stress by competition.

However, music education is being neglected due to the competition for entrance exams in Korean high schools nowadays. Owing to this given condition, the recognition of brass bands and several problems, school brass bands are not well run in reality. Therefore, focusing on high school brass bands in Jeju, this study aims at checking its operating realities and the problems through a survey and suggesting effective operating plans.

This study considered theoretical backgrounds first such as history of Korean wind music, that of Jeju, and the existing condition of high school brass bands in Jeju then investigated its operating realities of the schools which organize brass bands and operate them. Focusing on the schools, the object of the study, it grasped the budget and operating method, operating environment, a method of recruitment, and event participation rate by guidance teachers and students through the survey and put these together then analyze them.

Based on the reality analysis represented in the research, the problems are

revealed in operating high school brass bands in Jeju. They are the difficulty of securing the budget, the matter of recruiting band members due to negative peripheral recognition, lack of enough practice time, a chance to play, and suchlike.

On the basis of that, an effective way of operating high school brass bands is as follows.

Firstly, it is needed to secure stable financial support by maintaining economic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s, schools, alumni associations, parent groups, and local groups for the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brass bands.

Secondly, to recruit the members, there needs to conduct structured and systematic guidance of the members' course by revitalizing instructors' meetings and spreading practical use of musical groups for improvement in parents' consciousness, and by holding union activities, meetings, and concerts for each school members' ensemble besides mobilizing guidance teachers, counsel teachers, local community figures.

Thirdly, to secure enough time to practice, organization for voluntary learning of concert should be done three or four times a week in the range of no harm coming to formal school education. By the way, students who would like to study music should be practically helped to improve their ability by organizing an art course separately.

Lastly, the members need to learn more systematic and accurate techniques of playing the instruments to improve their basic knowledge by calling in a specialist.

A high school brass band is not only meaningful as one of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but important as an education for the whole man to refresh their emotion and regain humanity. I hope the results found in this study can be an aid to operate and develop the bands in the future and expect the school bands in Jeju, by extension the whole nation, to be revitalized through continuous study.

설문지(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제주도내 고등학교 관악대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평소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관악대를 운영함에 있어 생각하고 경험하셨던 것을 바탕으로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유 성 철

◆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의 ()안에 'V'표 하여 주십시오.

- * 성별 : ① 남 () ② 여 ()
- * 연령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이상 ()
- * 근무지역 : ① 시 지역 () ② 읍 지역 () ③ 면 지역 ()
- * 근무학교의 계열 : ① 인문 () ② 실업 ()
- * 근무학교의 설립자별 구분 : ① 국·공립 () ② 사립 ()

<관악대 실태에 대하여>

1. 귀교의 관악대원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 ① 10~20명 () ② 21~30명 () ③ 31~40명 ()
- ④ 41~50명 () ⑤ 51명 이상 ()

2. 지도선생님의 전공은?

- ① 관악 () ② 현악 () ③ 피아노 () ④ 성악 ()
- ⑤ 작곡 () ⑥ 국악 () ⑦ 기타 ()

3. 귀교의 관악대의 설립년도는?

- ① 1970년도 이전 () ② 1971~1980년 ()
- ③ 1981~1990년 () ④ 1991~2000년 () ⑤ 2000년도 이후 ()

<관악대 예산 및 운영에 대하여>

4. 귀교 관악대의 연간 운영 예산은?

- ① 200만원 이하 () ② 300만원 이하 ()
- ③ 400만원 이하 () ④ 500만원 이하 ()
- ⑤ 500만원 이상 ()

5. 관악대의 지원 예산 출처는?(가장 많이 지원되는 부분부터 나열해 주십시오.)

- ① 학교자체예산 ② 행사에 의한 기부금 ③ 동창회 ④ 독지가
 - ⑤ 기업 협찬금 ⑥ 외부지원(관, 사회단체 등) ⑦ 기타
- (순서 : → → → → → →)

6. 연간 악기 구입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약_____만원)

7. 관악대를 운영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예산 규모는? (약_____만원)

8. 귀교 관악대원의 장학 혜택은?

- ① 5명 이하 () ② 10명 이하 () ③ 20명 이하 ()
- ④ 30명 이하 () ⑤ 40명 이하 () ⑥ 없다. ()

9. 관악대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① 악기구입 () ② 대원확보 () ③ 강사초빙 ()
 - ④ 장학금지급 () ⑤ 동료교사들의 협조 () ⑥ 학부모들의 인식변화 ()
 - ⑦ 생활지도 () ⑧ 학업문제 ()
- (순서 : → → → → → →)

<관악대 운영 환경에 대하여>

10. 귀교 관악대의 하루 평균 연습 시간은?

- ① 1시간 이내 () ② 2시간 이내 () ③ 3시간 이내 ()
- ④ 4시간 이내 () ⑤ 4시간 이상 ()

11. 귀교 관악대의 주당 합주 횟수는?

- ① 주1회 () ② 주2회 () ③ 주3회 ()
- ④ 주4회 () ⑤ 주5회이상 ()

12. 귀교 관악대의 합주실 환경은?

- ① 매우 좋다. () ② 좋다. () ③ 보통이다. ()
- ④ 좋지 않다. () ⑤ 매우 좋지 않다. ()

13. 관악대에 대한 동료 교사들의 협조 정도는?

- ① 매우 협조적이다. () ② 협조적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협조적이다. () ⑤ 매우 비협조적이다. ()

14. 관악대에 대한 학부모들의 호응도는?

- ① 적극적이다. () ② 보통이다. ()
③ 소극적이다. () ④ 반대한다. ()

<관악대원 모집에 대하여>

15. 관악대원 모집은 잘 되고 있는가?

- ① 잘된다.() ② 보통이다.() ③ 잘 안된다. ()

16. 모집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7. 단원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 ① 본인의 희망 () ② 선배들을 통해 () ③ 지도교사의 권유 ()
④ 담임교사의 추천 () ⑤ 기타 ()

<행사 참여 정도에 대하여>

18. 귀교 관악대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해당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교내의식행사 () ② 정기연주회 ()
③ 관악제 () ④ 지역사회행사 () ⑤ 전국경연대회참가 ()
⑥ 기타 ()

19. 관악대의 연간 교내외 행사 참여 횟수는?

- ① 년1회 () ② 년2회 () ③ 년3회 ()
④ 년4회이상 () ⑤ 없음 ()

※ 위 내용 이외에 관악대의 발전 방향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

감 사 합 니 다.

설문지(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제주도내 고등학교 관악대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평소 관악대 활동에 대하여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유 성 철

◆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의 ()안에 'V'표 하여 주십시오.

- * 성별 : ① 남 () ② 여 ()
- * 학년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 * 학교소재지 : ① 시 지역 () ② 읍 지역 () ③ 면 지역 ()
- * 계열 : ① 인문 () ② 실업 ()
- * 학교의 설립자별 구분 : ① 국·공립 () ② 사립 ()

1. 관악대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본인의 희망 () ② 선배들을 통해 ()
- ③ 지도교사의 권유 () ④ 담임교사의 추천 ()
- ⑤ 기타 ()

2. 악기는 본인이 선택하였습니까?

- ① 본인이 직접 선택 () ② 선생님의 권유 () ③ 선배의 권유 ()

3. 현재 본인의 악기가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성에 맞다. () ② 보통이다. ()
- ③ 적성에 맞지 않다. () ④ 잘 모르겠다. ()

4. 부모님들께서는 관악대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 ② 보통이다. () ③ 반대한다. ()

5. 담임선생님께서 관악대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 ② 보통이다. () ③ 반대한다. ()

6. 본인의 하루 연습 시간은?

- ① 30분 미만 () ② 30분 이상 ()
③ 1시간 이상 () ④ 2시간 이상 ()

7. 파트별 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 ② 필요없다. () ③ 잘 모르겠다. ()

8. 관악대 활동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타 교과 선생님들의 비협조 () ② 부모님의 반대 ()
③ 선후배간의 관계 () ④ 학교 공부와의 병행 ()
⑤ 학교의 지원 부족 () ⑥ 기타 ()

※ 관악대의 발전을 위해 학교나 지도교사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

감 사 합 니 다.